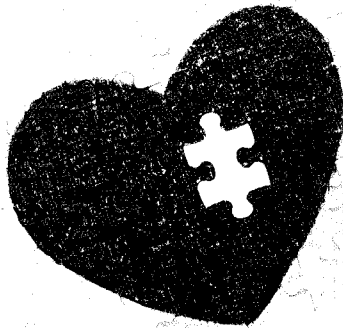


수술자극과

마야꾼 깨라음



*** 2003년, 26살이었던 나는 열심히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늦게까지 공부해야 했기에 몸이 정말 많이 피곤했지만 졸업하고 취업하겠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 해 8월 결막염에 걸렸다. 의사선생님은 3일 정도 약 먹으면 나아 것이라고 했지만, 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 달간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때 조금 더 빨리 내 몸의 상태를 파악했다면 결핵의 발병을 조금 일찍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얼마 뒤 잔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감기인줄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객담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과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오른쪽 폐 안쪽에 공동이 보인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결핵환자들의 공동 위치와는

조금 다르다며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나는 서울의 한 종합 병원에 갔고,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1차 약의 복용이 시작되었다.

“내가 고친 폐결핵환자만 천 명은 될 거야” 라는 의사선생님의 말만 믿고 매일 식사 전 공복에 아이나, 마이암부톨, 리

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복용하기 시작하니, 붉은 소변이 나오면서 부류관절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거나 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당시 약만 먹으면 된다는 말에 약을 먹긴 했는데, 약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 듣지 못해서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웠다.

난 정말 열심히 약을 먹었다. 두 달 정도 되니깐 기침도 줄고 객담도 잘 나오지 않았다. 의사선생님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다. 4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진료 당시 병원전산에 문제가 있어서 엑스레이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이후로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식은땀도 나고 다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기침이 시작되었다. 전형적인 결핵의 초기 증상이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단지 치료과정일 뿐이라는 말만 들었다.

2달이 흐른 뒤(약 복용 6개월 후) 죽을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의사선생님한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더니 CT촬영과 객담검사를 시켰다. 그 결과를 받기까지 2달이 흘렀다. 아이나와 리팜피신은 +++이라는 표시의 내성을, 2차 약인 파스는 +의 내성환자로 이미 왼쪽 폐까지 결핵균이 옮겨간 상태로 다제내성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단 하루도 약을 빼먹지 않았던 나에게서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던 순간이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결핵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결핵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엑스레이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라면 치료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나의 8개월간의 1차약 복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2차약 복용이 시작되었다. 내성인 아이나와 리팜피신을 빼고, 마이암부톨, 피라지나마이드, 피리독신, 프로치온아미드, 사이크로세린, 스트렙토마이신, 약간의 내성을 보였던 파스를 복용했다.

아침 약만 27알……. 약을 복용한 그 날부터 먹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구토증상이 시작되었다. 단 한 순간도 견딜 수가 없었다. 약의 부작용은 나를 너

E S S A Y

무 힘들게 만들었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었다.

2주간의 고민 끝에 삼성의료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입원하면서 부작용이 덜한 약을 찾기 시작했다. 병원에 있을 당시 1차 약도 2차 약도 모두 내성으로 더 이상 치료 받기가 어려웠던 환우를 봤다. 결핵을 우습게보고 약을 복용했다가 안했다가 하다가 결국 모든 약이 듣지 않게 되었다면서 꼭 약을 열심히 먹으라고 했다. 그 환우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정말 무섭게 기침을 했다. 그 순간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졌다. 프로치온아미드는 먹자마자 구토를 하기에 그 약을 뺀 나머지 약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사이 나는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정말 힘들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힘들었고, 변화가 없는 오른쪽 폐 공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언젠가부터는 죽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있는 싸이프로세린의 복용을 중단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세 번 맞는 스트렙토마이신 때문에 엉덩이는 감각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엉덩이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라지나마이드를 2년 정도 먹으니 일어나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다. 울무가 관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울무를 보리차처럼 끓여서 수시로 먹었더니 피라지나마이드의 부작용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었다.

2차 약 복용이 1년 이상 되니 부작용으로 너무 힘들어 끊은 약만 세 종류가 있었고, 약을 줄일 때마다 치료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다.

1년 3개월의 2차 약 복용 후 객담검사서 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폐의 공동의 크기가 작아지지도 않아지지도 않아서 결국 폐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차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2차약을 복용하면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폐결핵환자의 경우 임파선까지 결핵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경우 임파선은 깨끗하여 오른쪽 하엽 일부의 폐만 절제하기로 했다.

2005년 10월 11일, 척추에 무통주사를 놓고, 오후 2시 40분경 수술실에 들어

갔다. 3시경 수술실에서 마취가 이루어졌고, 5시 40분에 병실로 옮겨졌다. 수술 후 6일 뒤 피가 고이거나 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해 폐에 꽂아놓았던 튜브를 빼고 경과가 좋아서 퇴원하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절제된 폐는 염증이 심했지만, 그 부위에서 결핵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셨다. 수술 후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통증은 심했고 6개월 정도는 수술부위의 감각이 없었다. 1년 정도 지나니 몸이 이전처럼 좋아졌다.

수술 후 내 몸에 난 수술자국과 맞바꾼 것은 나올 수 있다는 희망과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몸을 회복하기 위해 안하던 운동도 시작했다. 열심히 걷기 운동도 하고 요가도 했다. 약은 수술하는 당일 아침에도 먹어야 했고, 수술한 뒤 1년 동안은 복용해야 했다. 2006년 10월 지켜온 결핵약의 복용을 끝내고 나는 다시 건강한 나로 돌아올 수 있었다.

1차 약 8개월, 2차 약 2년 3개월 총 3년 1개월의 지루한 치료가 종료되는 순간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항상 몸이 아팠기에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해 하던 나를 묵묵히 바라봐주었던 가족들에게 고마웠다. 무엇보다도 많이 가슴 아파하던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다.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약을 먹었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었고, 약을 중단한 후에도 2년 정도는 재발 위험이 있기에 가질 수 없었던 소중한 아기를 2009년 8월에 낳게 되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은 늦었지만 깨닫게 되어서 기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생 가슴에 새기게 되었으니, 결핵은 나에게 아픔과 깨달음을 동시에 준 병이다. †